

» 2018 육계업 결산

## 기록적인 폭염에 인한 산지시세 약세로 힘든 한해...



우 병 주

본회 경영정책국 과장

2018년 여름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기록적인 폭염과 병아리 생산증가로 인하여 육계 산지 가격 약세가 연간 지속되고 있어 육계농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낸 해이다. 2018년 육계 산업을 정리하고 내년 육계 산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1. 2018년 육계산업 통계

2018년 1월~9월 육용종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1.1% 증가한 552만 마리로 집계되었고, 9월 동기간 육용종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2.4% 증가한 385만수로 조사되었다. 2018년 1~9월 평균 육용종계 사육 마릿수는 817만 마리로 전년(806만 마리) 대비 1.4% 증가하였다. 따라서, 성계 사육 마릿수와 육성계 사육 마릿수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9월 육성계 사육 마릿수가 400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어 내년 산란에 가담하는 신계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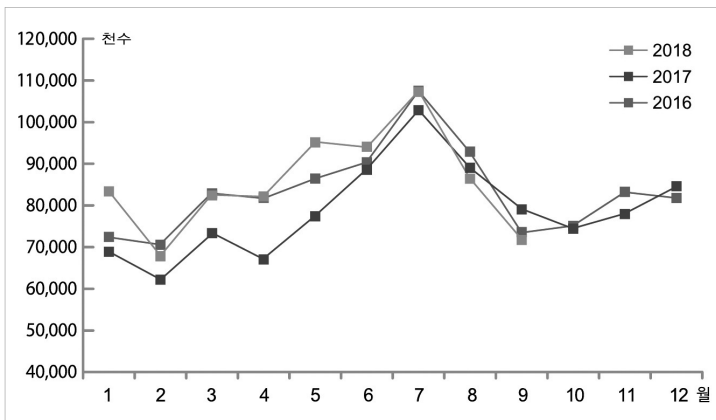
육계 생산성의 경우에는 겨울철 고병원성 AI에 따른 입식

표 1. 2018년 종계 사육 및 생산성 동향

단위 : 천마리

구 분	종계 입식	종계 도태	종계사육		
			전체	성계	육성계
2016년	5,582	3,761	8,057	4,331	3,726
2017년	5,515	3,852	8,173	4,559	3,631
증감률(%)	-1.2	2.4	1.4	5.3	-2.5

주 : 종계입식 및 도태, 종계사육 1~9월



년도	1	2	3	4	5	6	7
2018	83,367	67,811	82,388	80,215	90,513	94,105	107,260
2017	68,870	62,217	72,061	67,040	77,390	88,521	102,899
2016	72,420	70,565	81,786	90,033	90,283	75,115	80,326

년도	8	9	10	11	12	합계
2018	86,408	71,755				692,067
2017	89,014	79,024	70,440	77,693	80,846	936,015
2016	81,780	75,087	79,256	74,565	81,322	992,554

단위 : 만마리

<도표1> 2017년 도계 마릿수

제한으로 인한 영향과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음에도 증가하였다. 2018년 1~9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 대비 8.0% 증가한 7

억 6,382만 마리로 확인되었다.

금년 1~9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19.9% 증가한 11만 3,096톤으로 나타났다. 2018년 닭고기 총 수입량은 전년 총 수입량보다 33.3% 증가한 15만 0,794톤으로 전망된다.

##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017년 11월 중순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2018년 3월 중순까지 22개 농장에서 확인되어 전체 140농장 6,539천수를 살처분 및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정부에서 나서서 선제적인 입식 제한 및 방제를 실시하여 고병원성 AI 예방을 잘했다고 할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육계농장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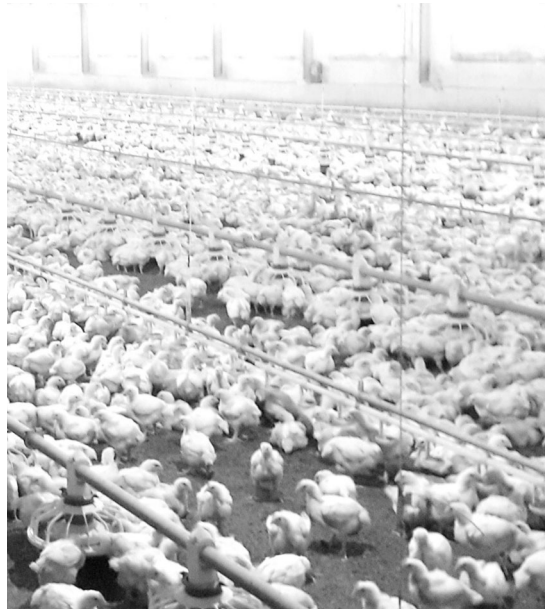
동제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되어 농장에서 정당한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3.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림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9월 20일(목))에 따르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 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 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하여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주)하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 및 과징금(7억 9천 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 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하여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육계 계열화 사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하면서 목적과 달리 계열사만 급속도로 성장을 하였다. 그 결과 애꿎은 계약사육 농가들만 쥐꼬리만 한 사육비에 생계마저도 불안한 상태로 내몰렸는데, 이번 (주)하림의 불공정 행위 발표로 인하여 계열사가 주장한 농가와와의 상생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하림의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계열사에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사육농가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열화사업 계획을 세워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제4기 닭고기자조금 관리위원장 및 대의원 선출

2017년 말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AI로 인하여 대의원 선출이 연기된 후 2018년 7월 지역별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여 80명 중 71명을 선출하였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무투표로 당선이 되었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투표까지 하면서 육계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관리위원장 선거에 3명이 입

후보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투표하여 본회 육계위원회 오세진 부회장이 당선되었다. 2018년 자조금 거출율이 낮은 상황에서 새로 당선된 닭고기자조금 위원장이 닭고기자조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계열사를 설득하여 2018년 거출율이 낮은 닭고기자조금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1월 30일까지 2019년 사업예산(안)을 받았으며, 닭고기자조금에 속한 가금단체 중 한국육계협회에서 사업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2019년 닭고기자조금 운영은 반쪽예산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5. 딱정벌레 퇴치 문제

최근 몇 년간 육계농장에서 딱정벌레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농장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인하여 방제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사의 구조물 중 단열의 책임지는 우레탄 등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퇴치가 어렵고, 농장 운영비 및 생산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19년에는 정부에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친환경 약품을 개발하여 농장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양계**

**농장주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해드립니다.**

#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에어덱트 전문

## 부성축산

대표 : 이 재 완

대구시 북구 관음동  
 TEL : (053) 324-7752  
 FAX : (053) 324-7736  
 H·P : 010-4000-9023  
 010-4805-7752